

# 삼남매 화재 친모 '실화→방화' 변경

검찰이 담뱃불 부주의로 아파트에 불을 내 어린 자녀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에 대한 범죄 혐의를 중과실치사·중실화(경찰 적용 혐의)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변경했다.

광주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배창대)는 29일 중과실치사·중실화 혐의와 함께 경찰로부터 구속 송치된 A(23·여) 씨에 대한 혐의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적용, 지난 28일 A 씨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26분께 광주 북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11층에서 이불에 담뱃불을 비벼 꺼불이 나게 해 네 살과 두 살 아들, 15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어린 자녀들이 자고 있는 작은방 입구 쪽에 놓인 이불에 담뱃불을 비벼 끈 이후 이불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귀가 직후 인방에 걸옷과 가방을 두고 주방 쪽에서 담배를 피우다 막내가 웅자 담뱃불을 이불에 끈 뒤 작은방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담뱃불이 꺼졌는지 확인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중과실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지난 8일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의 진술과 행동·상리분석, 사건 현장 감식 등의 수사를 이어갔다.

심리분석에서는 A 씨의 경찰 진술이 거짓반응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담뱃불에 의한 합성솜 이불(이름바 극세사 이불) 착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포함된 대검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검찰은 평소 이불 등이 널려 있으며 집안 곳곳에서 라이터가 발견된 점, A 씨가 신고 있던 스타킹에 탄화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A 씨의 얼굴에 복사열 등에 의한 화상이 없는 점, 화재 정도 등으로 볼 때 A 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 등에 직접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했다.

A 씨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작은 방 바깥에서 담배를 피운 뒤 이불 위에 담배꽂이를 올려둔 채 라이터 불 붙이는 장난을 하다 작은방에서 휴대전화를 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처음에는 자녀들과 자살할 생각에 진화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합성솜 이불 담뱃불 착화 불가능 '자살할 생각에 내버려둬' 진술

A 씨는 화재 발생 당일 친구와 전 남편에게 '화재 알리' 메시지를 전송, 귀가 뒤 화재현장 구조 직전까지 약 40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화재사건 3일 전

자녀들을 보육원에 보내고 새 인생을 시작할 것 이라고 말한 점, 전 남편·친구와 심하게 다툰 점, 생계비 마련을 위한 인터넷 불법사기 발행과 관련해 반세도록 변제와 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A 씨가 방화를 결

심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A 씨는 아파트 월세 미납과 자녀 유치원비 5개월 연체 등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A 씨가 이불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을 낸 것으로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용규 기자



겨울햇살에 말리는 닳나무 껍질 29일 지리산 자락인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마을에서 이상옥씨가 전통한지 재료로 이용되는 닳나무 껍질을 겨울햇살 아래 말리고 있다.

## '2년 전 한파 피해본 영광 양식장' 또 송어 수 만 마리 폐사

2년 전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송어 수 만 마리가 혹한에 폐사했던 양식장에서 올해 겨울 또 같은 피해가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9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28일 백수읍 A수산 양식장에서 기르던 송어 수 만여 마리가 한파의 영향으로 집단 폐사했다.

이날 양식장 동사 피해는 광주와 전남지역에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5일간 지속되던 중 발생했다.

양식장 업주 B씨는 "지난 23~26일까지 이어진 한파로 양식장 수온이 급강하해 송어가 집단 폐사했다"고 영광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영광군은 해양수산과 직원과 해양수산과학원 영광지원 관계자들과 합동 피해조사를 벌인 결과 혹한으로 양식장 수온이 떨어져 송어가 동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양식장에서는 지난해 6월 송어 12만 마리를 입식해 6개월 정도 길렀으며, 평균 25~30cm가량 성어

로 자라 출하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폐사한 송어 대부분이 품종인 얼음 속에 갇혀 있고 수면 아래가 남아 있어 정확한 폐사 규모 산출이 불가능한 가운데 양식장 측은 최소 8만여 마리 이상이 집단 폐사에 800여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양식장 같은 축제식(바닷가에 독을 쌓아 만든 양식장)

형태의 양식장은 재해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 보상이 막막하다는 데 있다.

보험사들이 바다 가두리 양식장은 보험 가입을 받아 주는 반면 축제식은 통해 피해 발생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광=서희권 기자

## 전남소방, 의료·요양시설 등 긴급 점검

전남소방본부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거울삼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월14일까지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 및 집단거주시설 277개소에 대한 합동 긴급안전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스포링클러 설치 소급 대상 68개소 가운데 현

재까지 미설치 요양병원 26개소와 응급실 및 중환자실을 보유한 의료시설 37개소 등 총 62개소이다.

노인요양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보건시설 등 집단거주시설 195개소도 함께 점검한다.

김정환 기자

## 인도 병원서 MRI에 빨려들어간 남성 사망

인도 뭍바이의 한 병원에서 환자보호자가 자기공명영상장치(MRI)에 빨려 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힌두스탄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힌두스탄타임스는 이날 뭍바이 남부 아그리파 담당 경찰이 사고가 발생한 나이르 병원에서 근무하는 수련의 사우리브호 란즈레카르 등 병원 관계자 3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병원 관계자들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숨진 라제쉬 마루티 마루(32)는 지난 27일 오후 7시30분께 차남과 장모를 병원에 모시고 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그리파 담당 경찰의 고위 관계자는 힌두스탄타임스에 마루가 차남과 함께 환자를 다른 틀것으로 옮기던 중 그의 팔이 MRI와 금속으로 된 산소 실린더 사이에 빨려 들어갔다고 밝혔다.

병원관계자들이 마루를 끌어당기는 동안 산소실린더 사이에 그의 손가락이 끼이면서 잘려나갔고 산소실린더의 튜브가 빠지면서 산소가 유출됐다. 부검 결과 마루는 치사량의 산소를 흡입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그를 끌어당겼던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산소실린더가 있는 상황에서 MRI의 전원을 켜 놓은 청소부와 의료진의 실책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일본 자위대 영관급 장교 강도 혐의 체포

일본에서 자위대 영관급 장교가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질을 한 혐의로 체포돼 파문을 던지고 있다.

산케이 신문과 NHK 등은 29일 사이타마(埼玉)현 경찰이 날카로운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난입해 현금 약 60만엔(590만원)을 강탈한 현역 육상자위대 2등육좌(중령)를 검거했다고 보도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육상자위대 아사카(朝霞) 주둔지에 근무하는 누마모토 유이치(沼本 優一 46) 2등육좌는 작년 11월19일 사이타마현 고시가야(越谷)시 소재 편의점에서 "돈을 내놔라"고 여점원을 위협하고서 현금을 빼앗았다.

누마모토 2등육좌는 여점원을 끈으로 묶은 다음 그대로 달아났다고 한다.

사건 후 경찰은 강도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주변 목격자 정보와 편의점 내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전날 누마모토 2등육좌를 용의자로 붙잡았다.

경찰은 누마모토 2등육좌의 차 안에서 사건 당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부엌칼 1개를 찾아 압수했다. 누마모토 2등육좌는 경찰 진술에서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들어 자위대 소속 자위관에 의한 범죄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고위 간부가 강도행위를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상당히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미 동부 세차장서 총기난사로 5명 사망

미 동부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세차장에서 일요일인 28일 아침(현지시간)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 5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고 경찰이 발표했다.

피츠버그에서 남동쪽으로 89km 거리에 있는 솔트릭 타운십의 멜크로프트 마을에서 일어난 이 총격전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20대와 30대인 남성 3명과 여성 2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중 4명은 현장에서 사망이 신고되었고 한 명은 병원으로 후송된 후 숨을 거두었다.

병원에 입원 중인 남성 혹은 여성 부상자는 아직 상태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사상자들의 가족들은 집안의 말다툼으로 시작된 싸움이 세차장에서 총격으로 이어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주 경찰은 아직 총격사건의 동기를 알아내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가족들의 말은 이 지역 WPXI-TV가 인터뷰로 보도한 내용이다. 피츠버그 트리뷰리뷰지 보도에 따르면 현장 부근에 사는 한 남성은 그날 아침 몇 분 간격으로 약 30발의 총성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사망자 2명은 한쪽 차량 안에서, 다른 2명은 차 밖의 주차장 바닥에서 발견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경찰은 총격을 가한 사람이 현장에서 발견된 사람들 중의 한 명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중이다.

뉴스

# 모두, 안녕하세요?

##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일반 건강검진

암해당인원 건강진단

당뇨아 건강검진

혈압검진

구강검진

###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검진 항목	진행 전	진행 후
심혈관 질환 발생률	42%p 감소	42%p 감소
암 발생률	18%p 감소	18%p 감소

\*연말에는 건강검진이 중단되거나, 미리 미리 건강 관리하세요.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